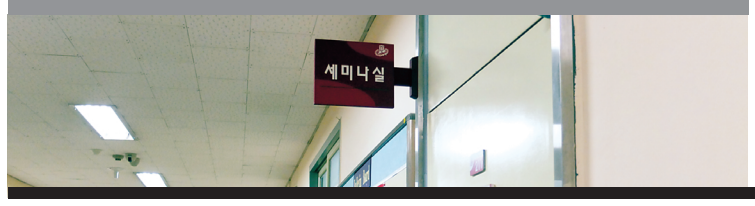
제1551호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media.khu.ac.kr
media.khu.ac.kr/m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3 》 강의실 대여 논란



5 》 기획 – 한국어 교육 해외진출 현황

학사다이어리 – 2013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3. 10. 7(월) ~ 10.11(금)
- **신청대상** :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인 자 중 희망자
  - 단, 서울캠퍼스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국제캠퍼스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청접수 이후 단과대학 승인절차 필요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2전공과 제3전공란에 다전공을 희망하는 전공 선택 후 저장
- **승인 확인기간** : 10.22(화) 예정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국적은 달라도, 선율은 하나 지난 1일 크라운관에서 열린 '경희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축하 공연으로 문화관광부 '문화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초청돼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있다.

강의실 운용, '개방형'으로 효율 높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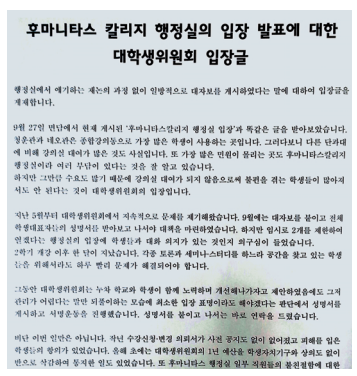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실 대여 논란

이승준 기자 Seung@khu.ac.kr

【서울】 학생회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후마)이 강의실 대여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미 양측은 대자보의 형식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알리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소한의 강의실 관리를 위해 학생을 상대로 한 대여의 폭을 축소하겠다는 후마측의 입장이 정당한 교육공간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측의 입장과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올해 5월 중순 후마는 청운관, 네오르네상스관(네오관)의 강의실 대여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네오관 강의실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실은 청운관과 네오관에 위치한 부서 관련 행사와 후마 학생관련 모임에 한해 강의실 사용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학생회측은 반발했다.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학생대표자 긴급성명서를 통해 공간을 사용할 학생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강의실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27일에 후마 행정실장과 총학생회(총학) 대표, 후마 대학생위원회 대표는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의 입장 발표에 대한 대학생위원회 입장글

행정실에서 얘기하는 제는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게시하였다는 말에 대하여 입장글을 게재합니다.

9월 27일 면담에서 현재 게시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입장'과 똑같은 글을 받아보았습니다. 청운관과 네오관은 중앙강의동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단과대에 비해 강의실 대여가 많은 곳도 사실입니다. 또 가장 많은 민원이 몰리는 곳도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이라 여러 부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기 때문에 강의실 대여가 되지 않음으로써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지도 안 된다는 것이 대학생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대학생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9월에는 대자보를 붙이고 전체 학생대표자들의 성명서도 받아보고 나아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2개를 제한하여 얻었다는 행정실의 입장에 학생들과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학기 개강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종 모든과 세미나스테디룸 하느라 공간을 찾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학생위원회는 누차 학교와 학생이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나가자고 제안하였음에도 그저 관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에 최소한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성명서를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를 붙이고 나서는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비난 이면 일면은 아닙니다. 작년 수강신청변경 의혹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있어왔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항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대학생위원회의 1년 예산을 학생자치기구와 상의도 없이 반으로 삭감하여 통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후마니타스 행정실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함에 대한

학생회측은 강의실 '대여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강의실 대여를 이전과 같이 모든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마 유재홍 행정실장은 "강의실 대여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청운관과 네오관을 이전처럼 사용할 수 있고, 네오관에 한해서만 6시 이후의 사용에 제한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1교시 수업을 위한 강의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 행정실 입장 달라

하지만 후마 대학생위원회 심규협(법학 2008) 회장은 "청운관은 공강 시간에나 잠깐씩 사용하는 것이고 저녁 시간에는 대학원 수업이 없어도 대여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후마쪽 강의실 사용은 네오관으로 축소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다. 심 회장은 "이제 다시 네오관에 대해서도 모든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2개 강의실만 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여를 불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후마 행정실 의견에 반박했다.

▶3면으로

Newsmaker

큐브위성 경연대회 선발된 우리학교 SIGMA팀
이성환(우주탐사학 석·박사 통합과정 3기) 대표

큐브위성, 설계부터 발사까지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지난달 16일, 2013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우리학교 SIGMA팀이 조선대, 충남대 팀과 함께 최종 3개 팀에 선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SIGMA팀의 큐브위성은 앞선 두 차례의 경연을 통해 설계 검증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SIGMA팀은 위성개발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지원과 개발 완료된 위성의 발사기회를 얻었다. 이번 달, 본격적인 위성 제작을 앞두고 있는 SIGMA팀의 학생대표 이성환(우주탐사학 석·박사 통합과정 3기) 군을 만났다.

SIGMA팀의 큐브위성이 맡은 임무는 근지구 공간에서 자기장 분포, 변화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군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큐브위성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큐브위성이라는 분야가 생소해 이 같은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우주에 띄울 큐브위성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었다"고 대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큐브위성이란 1kg 남짓의 무게에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한다. 이 군은 "큐브위성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작은 크기 때문에 이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큐브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공위성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원리를 모두 이해해야 하고 제작 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와 과정도 일반 위성과 같다"고 말했다.

즉, 일반 인공위성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SIGMA팀의 큐브위성이 맡은 임무는 근지구 공간에서 자기장 분포, 변화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군은 "특히 방사선과 관련된 데이터는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 위성이 발사와 운영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IGMA팀이 대회에서 최종 선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임무의 독창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개발과 발사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큐브위성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특징 덕에 동시에 여러 개를 쏘아 올려 다양한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

경연대회 선발을 통해 SIGMA팀은 큐브위성 제작과 발사 준비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체 제작한 위성은 2015년 러시아 로켓에 실어 발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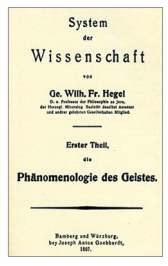
이 군은 "인력 부족과 샐 수 없는 밤샘작업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띄운 위성이 우주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대학원 생활을 모두 바쳐 만든 큐브위성을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이 군. 직접 만든 큐브위성이 발사에 성공해 이 군과 더불어 SIGMA팀 팀원 모두 벅찬 감동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시대정신'의 정초, 헤겔의 《정신현상학》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⑰

우기동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헤겔의 철학은 관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헤겔에 의하면 역사란 이념이 스스로 전개돼 점차 더 완전한 사회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념이 자기 전개하는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이다. 이때 자유는 정신의 본질로 규정되기 때문에, 역사는 세계정신이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헤겔은 '이성의 간지(奸智) List der Vernunft'라는 사변적 범주를 도입한다. 이성의 간지란 세계정신이 개인을 이용해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의 역할을 설명하는 범주이다. 세계정신은 때로는 역사적 위인을, 때로는 연약한 개인을 등장시켜 '시대정신이라는 역사적 필연성'을 체현한다. 말하자면 이성의 간지라는 개념은 인간의 열정, 관심사, 행위 등을 이용해 역사적 필연성을 관철시키는 초개인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정신과 이념을 전제하고 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이성과 정신을 확립하는 '의식의 경험의 학'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이성과 정신을 확립하는 '의식의 경험의 학'이다. 의식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감성적 확신, 지각, 오성, 자기의식, 이성, 정신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확립된 정신은 앞에서 언급한 역사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헤겔철학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토대라 할 수 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 개념이다. 헤겔은 최초로 노동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노동을 바탕으로 근대의 시대정신을 형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정신현상학》〈자기의식〉장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7면으로

알림

전문가 칼럼 연재 종료

유원준(사학) 교수의
'중국사의 시공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 6면

대학주보는 모바일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m